



# '광대역 LTE' 지방 고객은 없다

### KT 이달 수도권... 광주 등 지방은 내년에 제공 이통사들 "망구축" 핑계... 요금은 똑같이 적용 "2배 빠른 LTE" 등 과장 광고 소비자 혼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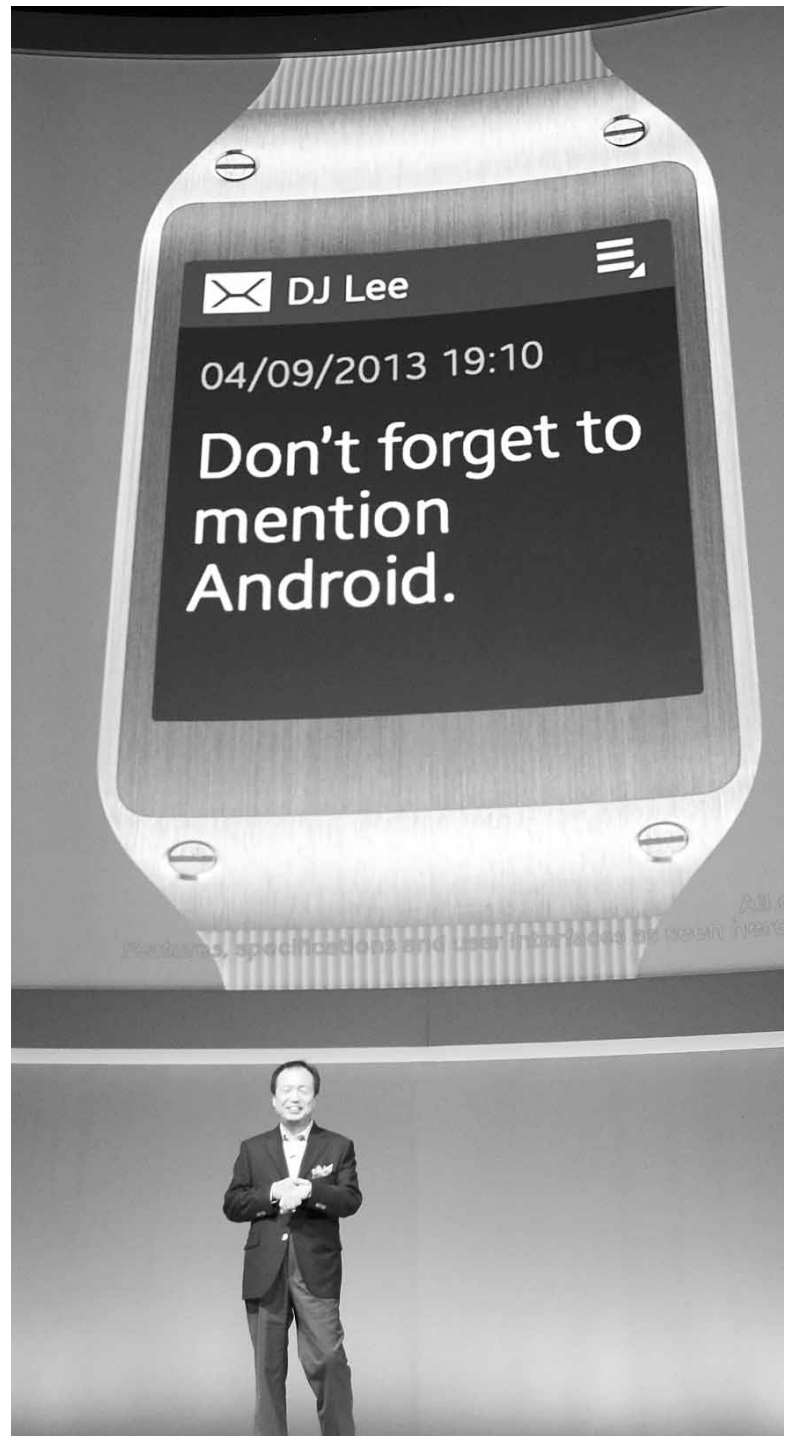
주파수 전쟁을 치른 국내 이통통신사들이 이번엔 '광대역 LTE' 서비스 경쟁으로 맞붙었다. '광대역LTE-A'(KT), '100% LTE'(LG유플러스), '2배 빠른 LTE'(SK텔레콤)를 전면에 내세워 서비스를 과장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 이통사를 헐뜯는 이전투구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낯 뜨거운 홍보전에 혼란스럽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내년 3월에야 가능하도록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아 반발하고 있다.

5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 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면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를 규제했다. '1.8GHz 대역 D2블록' 낙찰업체는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서비스를, 같은 해 7월부터 전국망 서비스를 하도록 계약조건을 달았다. D2 블록 낙찰업체가 KT라는 것을 감안하면,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는 광주의 경우 내년 3월, 전남은 내년 7월에서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미래부는

SK텔레콤에 KT보다 다소 늦은 '2014년 6월 광역시, 2014년 12월 전국 서비스'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SKT 가입자는 내년 6월, 전남은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통통신사들은 '광대역LTE-A', '100% LTE', '2배 빠른 LTE'를 내세워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지방은 빨라야 내년 3월이 돼야 가능한데도 말이다. 시차 발생 이유에 대해 이통업계는 네트워크 구축 문제 때문이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TE-A를 비롯해 대다수의 새 서비스를 위해서는 망 구축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한꺼번에 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비스가 늦어지는 만큼 요금 체계도 달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비스 질을 감안하면 지방 주민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이통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통업계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LTE-A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방에서 LTE-A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도 지방 정치권이나 소비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통업체들 간 영업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영업 보장을 위해 KT의 서비스를 제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T는 대놓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불만이 적지 않다. 특정 이통사가 수혜를 본다면 다른 페널티를 줘야지, 지방 소비자들에게 주어질 통신서비스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결국 지역민들을 호구로 본다는 소리 아니냐는 것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국민 편의라는 틀에서 봐야지, 업계 간 이해관계라는 좁은 틀에서 보자면 이 같은 황당한 커버리지 규제가 나왔다"며 "미래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삼성전자 신종군 대표이사 겸 IM 부문장이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기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우체국 이달부터 알뜰폰 판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220여 우체국에서 저렴한 이통통신 '알뜰폰(MVNO)'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체국에 가입 업무를 수탁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에넥스텔레콤, 유니컬즈, 아이즈비전, 에버그린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등 6곳이다.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업체를 돕는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CJ헬로비전, SK텔레콤 등 상대적 규모

가 큰 알뜰폰 업체들은 우체국 위탁 판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체국은 소비자가 6개 업체의 요금제 중 하나와 단말기 모델을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대신 접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말기는 수일 내 택배 등으로 배달되며, 사후서비스(AS)나 민원 등은 각 업체의 고객센터가 접수·처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알뜰폰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자-이통사 손잡고 단말기 공동조달

앞으로 더욱 싸게 알뜰폰(MVNO)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와 제조사, 유통업체가 손잡고 자급 단말기 공동조달을 통해 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자급 단말기 공동조달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참가 업체들이 자급단말기 공동조달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MVNO 협회와 CJ헬로비전·유플러스 등 17개 알뜰폰 사업자와 삼성전자·LG전자·비츠모 등 10개 제조사, 인터파크, 세븐일레븐 등 유통업체 2개사 등 총 30여개 업체는 공동조달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제조사도 양질의 자급 단말기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급 단말기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자 단말기를 출시할 때 포장박스 등에 자급 단말기 마크를 붙이기로 했다. 미래부는 단말기 망적합 시험시설에 방사능 시험시설을 추가 구축하는 등 자급 단말기 시험인증을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국내 중소 제조사에 전과인증 비용 등을 지원해 자급 단말기 출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보다폰, M2M 서비스 직접 제공

세계 최대 이통통신 기업인 보다폰(Vodafone)이 서울 영업사무소를 통해 사물통신(Machine-to-Machine·M2M)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M2M은 기기 간 무선통신을 활용해 주변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가공·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보다폰은 자사의 M2M 솔루션을 활용해 30개국 이상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50개국 이상의 협력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통신사 중 한 곳과 협력 작업을 준비 중이다. 보다폰은 국내에서 제조, 의료, 환경, 에너지 산업 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이다.

## 고흥우주체험센터, 참가단체 추가모집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한다.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이하 우주체험센터)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우주과학 체험활동 참가 단체를 추가모집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주과학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학

교와 청소년단체는 초급과정인 기본형 프로그램, 심화과정인 모듈형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주체험센터 홈페이지(http://www.kywa.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김영신 광양중진초 교사 '과학전람회' 국무총리상

김영신(사진) 광양중진초등학교 교사가 제59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 교사는 수생식물인 마름과 생애주기를 함께하는 마름알벌레(일벌)의 생활사와 형태적 특징을 밝히고, 육서곤충임에도 수면에 살기 위한 적응전략을 탐구했다. 김 교사는 "광양중진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임 교사는 이번 대회에서 '전통건축에서의 창의적 교

구 제작'을 탐구해 출품했다. 여수고등학교 박상준·최원준·김진수(2년) 군은 학생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상은 광주 3개팀, 전남 5개팀이 받았다. 광주는 염주초 장은성·정은은 팀, 광주교대부초 김성훈·신윤 팀, 광주과학고 이다예·백지민·김희창 팀이 차지했다. 전남은 교원부에서 김미숙(해남 산이초 교감)·오완수(신안 자은초 교사) 팀이, 학생부에서 광



양철성초 김성권·조경환·윤혜빈 팀, 전남과학고 김영준·박예진·유영준 팀과 서고훈·박성연·김태경 팀, 발명영재단 진은비(함평 학다리중)·문성도(목포 옥암중)·정승원(목포 영화중) 팀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더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노트3 나왔다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도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가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3 개막을 이틀 앞둔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사진)를 열고 갤럭시노트3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기어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3는 풀HD 슈퍼아몰레드 5.7인치 화면에 대용량 3200mAh(밀리암페어시) 배터리를 탑재했다. 두께는 8.3mm로 이전 모델보다 얇아지고 무게는 168g으로 가벼워졌다. 노트3에서는 S펜 기능이 대폭 확대

됐다. 화면 위에서 S펜 버튼을 누르면 5가지 주요 기능이 팝업 형태로 뜨는 '에어 캔버스' 기능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연동돼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다. 시계줄에는 카메라(190만 화소)가 달려있어 사진과 짧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S보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전화 수·발신은 물론 일정 추가, 알람 설정, 날씨 확인을 음성으로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를 25일 140여 개 국가에서 출시한다. 다만 갤럭시노트3의 경우 11일부터 국내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  
대지권 1924㎡ 건물 3290㎡  
감정가격 47억3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회선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행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곳모빌타운 북영사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러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토목공사 진행중 명품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 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신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복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